

中國古典小說의 國內 流入과 受容에 대한 研究

閔 寬 東*

<目 次>

I. 序 言	IV. 國內 流入된 清代小說
II. 國內 流入된 明代以前 小說	V. 板本概況과 分析
III. 國內 流入된 明代小說	VI. 結 語

I. 序 言

국내에 유입된 중국고전소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이는 매우 愚昧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중국고전소설의 개념정의에 따른 範疇問題와 時期의 設定에 따라 중국고전소설의 숫자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에 숫자상의 통계가 無意味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론 얼마나 많은 중국소설이 국내에 유입되었는지 자못 궁금해지기도 한다.

중국고전소설의 국내 유입과 번역 및 출판의 문제는 그동안 筆者가 一連의 研究課題로 研究해온 一部分으로, 本稿에서는 주로 國內의 流入關聯 문헌기록과 전국 각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판본을 대상으로 중국고전소설의 최초 국내 유입기록과 판본문제 그리고 翻譯과 出版 與否 및 所藏處 등을 調査해 보았다.¹⁾

* 慶熙大學校 中國語科 教授

1) 아래의 도표는 拙著의 《中國古典小說在韓國之傳播》(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98년),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아세아문화사, 2001년), 《中國古典小說批評資料叢考》(학고방, 2003년) 등을 근거로 만들었다.

먼저 국내 고전문헌에 언급되어 있는 유입관련 기록과 국내 30여개의 주요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中國古典小說 목록을 調査해 보니 그 數量이 大略 330餘 種이나 되었다. 이 수량은 2001년 필자가 발표한 논문²⁾에서는 280여 종으로 확인되었으나 최근 박재연, 최용철 등의 새로운 자료발굴에 힘입어 무려 50여 종 이상이 더 늘어났다. 여기에서 필자는 이들의 流入時期와 關聯된 最初의 文獻記錄 및 번역·출판과 所藏處를 再整理하여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만들었고 이 자료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병행하였다. 물론 본인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판본과 不注意로 漏落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중국고전소설의 國內 流入과 유입관련 최초 기록 및 翻譯과 出版에 대한 자료를 紹介하고 분석하여 數量化 해보는데 그 의의를 두기로 한다. 또 본 논문에서는 소설의 범주를 일반적인 분류기준에 근거하였고, 시기 설정은 크게 “명대이전의 작품”과 “명대의 작품” 그리고 “청대의 작품”으로 三分하여 정리하였다.

II. 國內 流入된 明代以前 小說

書名	流入關聯 最初記錄과 時期	翻譯/出版	所藏處
山海經	西紀284年以前([百濟時代]和漢三才圖會), 朝鮮王朝實錄[太宗卷24] 等.	無	中央圖書館 等
穆天子傳	1700年代中期以前, 靑莊館全書 卷57.	無	藏書閣
神異經	未詳, 朝鮮筆寫本, 筆寫者.筆寫年 未詳.	無	啓明大
說苑	1091年以前, 高麗史(世家, 第10, 宣宗8年[1091年])等	無	中央圖書館 等
新序	1091年以前, 高麗史(世家, 第10, 宣宗8年[1091年])等	無	失傳

2) 拙著, <중국고전소설의 국내 수용>, 《中國小說論叢》제14집, 2001.8
이 논문의 도표를 다시 활용하여 50여 종의 目錄을 추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판본상황에 대한 分析은 다른 각도에서 시도하였다.

洞冥記	未詳[1618年以前], 惺所覆瓿稿 卷13.	無	失傳
十州記	未詳[1618年以前], 惺所覆瓿稿 卷13.	無	失傳
漢武故事	未詳[1600年以前], 西浦漫筆 下卷.	無	失傳
列仙傳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奎章閣
列女傳	1404年以前, 海東繹史 卷44 藝文志3.	翻譯, 出版	奎章閣 等
述異記	1700年代中期以前, 靑莊館全書 卷57.	無	啓明大
語林	未詳[1618年以前], 惺所覆瓿稿 卷5.	無	失傳
博物志	未詳[1549年以前], 剪燈新話句解跋[林芑].	無	奎章閣 等
搜神記	1091年以前, 高麗史(世家, 第10, 宣宗8年[1091年])等	無	奎章閣
高士傳	1091年以前, 高麗史(世家, 第10, 宣宗8年[1091年]), 閑情錄 等	無	失傳
世說新語	1195年以前, 東國李相國集(卷5, 古律詩), 朝鮮版“世說新語補” “世說新語姓彙韻分”	出版	奎章閣 等
西京雜記	未詳, 中國木版本.	無	中央圖 等
吳越春秋	未詳[1618年以前], 惺所覆瓿稿 閑情錄.	無	失傳
說郛	未詳[1618年以前], 惺所覆瓿稿 閑情錄.	無	失傳
齊諧記	未詳[1800年以前], 五洲衍文長箋散稿 卷7.	無	失傳
諾臯記	未詳[1800年以前], 五洲衍文長箋散稿 卷7.	無	失傳
酉陽雜俎	1492年以前, 朝鮮王朝實錄(成宗實錄, 卷285, 成宗24年)	出版	成均館大 等
宣室志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獨異志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遊仙窟	7-8世紀頃[新羅時代], 唐書	無	失傳
南柯夢記	未詳[1790年以前], 雜同散異.	無	失傳
白猿傳	1628年以前, 芝峰類說(卷7)	無	失傳
邯鄲夢記	未詳[1790年以前], 雜同散異.	無	失傳
夷堅志	[1800年以前], 五洲衍文長箋散稿 卷7.	無	高麗大 等
太平廣記	1080년 以前, 澗水燕談錄(王闢之) 1100~1200年間, 高麗史(志, 樂二).	翻譯, 出版	奎章閣 等
宣和遺事	[1800年以前], 五洲衍文長箋散稿 卷7.	無	高麗大 等
閑窗括異志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睽車志	1618年代以前, 閑情錄	無	延世大 等
福壽全傳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溪蠻叢笑	未詳, 朝鮮筆寫本, 筆寫者.筆寫年 未詳.	無	奎章閣
螢雪叢說	未詳, 中國木版本.	無	延世大
癸辛雜識	未詳, 中國木版本, 續書있음.	無	奎章閣
過庭錄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冷齋夜話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趙飛燕外史	1600年代中後期, 西浦漫筆 卷下.	無	失傳
嬌紅記	1506年, 朝鮮王朝實錄(燕山君, 卷62條)	未詳	失傳

도표에 나타난 판본의 분석에 앞서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국내 문헌기록에 언급된 중국고전소설들이 모두 국내에 유입된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사실 전부 유입되었다고 斷言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유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설사 다른 중국서적에서 그 書目이나 문장을 再引用하였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관심이 없다면 재인용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적어도 한번쯤은 직·간접적으로 작품을 접해보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한 假定이 전제된 가운데 국내에 유입된 중국고전소설의 數量을 헤아려 보니 약 330여 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명대이전의 작품으로 대략 40여 종의 판본이 확인되었다. 이는 明·清代의 小說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숫자로, 비록 유입되었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戰禍로 失傳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現在 國內 여러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中國古典小說 가운데 특히 明代以前の 作品들은 大部分이 清代 中·後期에 淸나라에서 다시 出版되어 朝鮮에 流入된 板本들이기에 실제 문헌기록에 최초로 언급된 小說 판본과는 다소 差異가 있음이 확인 된다. 사실 문헌기록에 나타난 판본이 현재 국내 주요 도서관에 그대로 소장되었거나 남아있는 판본은 지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고전소설의 流入時期는 關聯文獻 記錄을 근

거로 연도를 算定한 것이기에 實際의 流入時期는 應當 그 以前일 것이다.

이들의 유입관련 기록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문헌으로는 朝鮮 光海君때 許筠(1569~1618년)이 쓴 《惺所覆瓿稿》, <閑情錄> 凡例中 中國稗官小說 書目³⁾으로 이 책은 특히 중국고전소설의 유입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五洲衍文長箋散稿》, 《西浦漫筆》, 《雜同散異》, 《靑莊館全書》 등의 문헌들도 중국고전소설의 유입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III. 國內 流入된 明代小說

書名	流入關聯 最初記錄과 時期	翻譯/出版	所藏處
剪燈新話	1506年, 朝鮮王朝實錄(燕山君, 卷62條)	出版, 翻譯	奎章閣 等
剪燈餘話	1450年代以前, 龍飛御天歌(第99章), 朝鮮王朝實錄(燕山君, 卷62條) 等	出版	失傳
剪燈叢話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無	失傳
覓燈因話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花影集	1546年, 花影集 跋文, 國內出版本	翻譯, 出版	失傳(日本)
效顰集	1506年, 朝鮮王朝實錄(燕山君, 卷62條)	出版	失傳(日本)
虞初志	[1800年以前], 五洲衍文長箋散稿 卷7.	無	失傳
何氏語林	未詳[1618年以前], 閑情錄.	無	奎章閣
西湖遊覽志	未詳[1618年以前], 閑情錄.	無	失傳

3) 乃朱蘭嶼太史所贈 《栖逸傳》, 《玉壺冰》, 《臥遊錄》 三種反覆披覽……甲寅乙卯兩年 因事再赴帝都 斥家貨購得書籍 幾四千餘卷……(中略)……《列仙傳》, 《世說新語》, 《太平廣記》, 《睽車志》, 《高士傳》, 《何氏語林》, 《事文類聚》, 《貧士傳》, 《仙傳拾遺》, 《問奇語林》, 《稗海》, 《說郛》, 《張公外記》, 《筆談》, 《南村輟耕錄》, 《玉壺冰》, 《吳越春秋》, 《眉公秘笈》, 《小窓清記》, 《明野彙》, 《經鋤堂雜誌》, 《稗史彙編》, 《四友叢說》, 《林居漫錄》, 《艷異編》, 《耳談類林》, 《避暑餘話》, 《太平清話》, 《玄關雜記》, 《河南師說》, 《西湖遊覽記》 等. <許筠全書,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253쪽>

艷異編	未詳[1618年以前], 閑情錄.	無	박재언
浪史	1744年以前, 字學歲月(윤덕희)	無	失傳
國色天香	1720年以前, 陶谷集(庚子燕行雜識)	無	失傳
三國志演義	1569年以前, 朝鮮王朝實錄(宣祖, 卷3), 西浦漫筆 等	翻譯, 出版	中央圖書館, 奎章閣 等
後三國志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成均館
封神演義	1675~1728年以前, 謙齋集 卷42, 五洲衍文長箋散稿, 等	翻譯	奎章閣 等
東周列國志	(列國志)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五洲衍文長箋散稿, 等	列國志 (翻譯)	奎章閣, 成均館 等
隋唐演義	1618年以前, 惺所覆瓿稿 卷13. 等	翻譯	中央圖書館 等
三遂平妖傳	未詳, 中國木版本	無	中央圖書館, 奎章閣 等
西漢演義	1569年以前, 朝鮮王朝實錄(宣祖, 卷3), 惺所覆瓿稿 卷13. 等	翻譯, 出版	高麗大 等
東漢演義	1618年以前, 惺所覆瓿稿 卷13. 等	翻譯	延世大 等
殘唐五代史演義	1618年以前, 惺所覆瓿稿 卷13. 等	翻譯	成均館, 梨花女大 等
皇明英烈傳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一名:雲合奇踪	翻譯	奎章閣, 梨花女大 等
續英烈傳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無	奎章閣
開關演義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翻譯	高麗大 等
孫龐演義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翻譯	樂善齋
隋煬帝艷史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奎章閣, 高麗大 等
大唐秦王詞話	未詳, 國內翻譯本, 一名:唐秦演義	翻譯	樂善齋
北宋志傳	1618年以前, 惺所覆瓿稿 卷13. 等, 一名:楊家將傳	翻譯	樂善齋
南宋志傳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翻譯	李謙魯
盛唐演義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無	失傳
隋史遺文	未詳(朝鮮後期)	翻譯	박재언

東晉演義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無	失傳
西晉演義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無	失傳
包公演義	1600年代中後期(宮中書札),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一名:龍圖公案, 或 百家公案	翻譯	奎章閣, 成均館 等
薛仁貴傳	未詳(1800年代以前), 秋齋集(卷7.紀異. 傳奇叟)	翻譯,出版	中央圖書 館 等
南溪演義	原本未詳, 1700年代後期以前, 玉駕再合 奇緣(第14.15卷)	翻譯	樂善齋
涿鹿演義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無	失傳
武穆王精忠 錄	1584年以前, 宣祖修正實錄.	翻譯	成均館 等
齊魏演義	1618年以前, 惺所覆瓿稿 卷13.	無	失傳
前後七國志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東亞大
西遊記	1347年以前, 朴通事諺解, 1618年以前, 惺所覆瓿稿13, 等	翻譯,出版	成均館 等
後西遊記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東遊記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五洲衍文長箋散稿, 等	翻譯	高麗大
三寶太監西 洋記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奎章閣 等
水滸傳	1618年以前, 惺所覆瓿稿 卷13. 等	翻譯,出版	奎章閣 等
後水滸傳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翻譯	樂善齋
結水滸傳	未詳, 中國木版本	無	中央圖書 館 等
續水滸傳	1800年代初中期, 五洲衍文長箋散稿, 等	無	奎章閣
仙媛傳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富公傳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迪吉錄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昭陽趣史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鐘離葫蘆	1623-1649年間, 於于野談	出版	雅丹文庫
五雜俎	1800年代初中期, 五洲衍文長箋散稿, 等	無	失傳

情史	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等
西湖二集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金瓶梅	1618年前後, 惺所覆瓿稿, 澤堂別集 等	無	奎章閣 等
續金瓶梅	1800年代初中期, 五洲衍文長箋散稿,	無	奎章閣
痴婆子傳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隔簾花影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一名:三世報	無	延世大

* 續書는 연구의 편의상 原書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醒世恒言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奎章閣 等
警世通言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覺世名言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一枕奇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雙劍雪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金粉惜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鬧花叢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박재연
禪真後史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無	失傳
禪真逸史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翻譯	樂善齋
韓魏小史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韓湘子傳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石點頭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紅梅記	未詳	翻譯	樂善齋
娉娉傳	18世紀初, 國內翻譯本, 剪燈餘話5(類似)	翻譯	樂善齋
楊六郎傳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貪歡報	1744年以前, 字學歲月(윤덕희),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一名:歡喜冤家	無	失傳
顧玉川傳	未詳[1800年以前], 五洲衍文長箋散稿.	無	失傳
禱杻閒評全傳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稗海	未詳[1618年以前], 閒情錄.	無	失傳
春夢瑣言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紅隣幾雜誌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瓦史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山中一夕話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弁而釵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野記	未詳,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智囊補	未詳, 中國木版本	無	박재연
北窗志異	未詳,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稗史彙編	未詳[1618年以前], 閑情錄.	無	失傳
林居漫錄	未詳[1618年以前], 閑情錄.	無	失傳
避暑餘話	未詳[1618年以前], 閑情錄.	無	失傳
太平清話	未詳[1618年以前], 閑情錄.	無	失傳
太原志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翻譯	樂善齋
拍案驚奇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型世言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翻譯	奎章閣, 樂善齋
今古奇觀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翻譯, 出版	高麗大 等
皇命世說 新語	未詳, 中國木版本	無	中央圖書館 等
玉壺水	未詳[1618年以前, 約1580年代], 閑情錄.	出版	奎章閣 等
五朝小說	未詳, 中國木版本,	無	박재연
文苑植橘	1699~1760年以前, 國內出版本,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等	出版	中央圖書館 等
醉醒石	未詳, 中國木版本	無	中央圖書館 等

국내에 유입된 명대소설은 대략 100여 종으로 이들 판본의 유입시기 문제와 판본양상 및 번역·출판 상황 등을 고찰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첫째, 국내에 유입된 명대소설은 대략 100여 종인데 그 가운데 번역된 작품이 무려 30종(미확인 1종 포함)이나 된다. 이는 유입된 명대소설의 30%에 육박하는 비율로 매우驚異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번역의 주

류를 이루는 작품으로는 《三國演義》와 같은 연의류 소설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출판에 있어서도 총 18종 가운데 12종(그 중 《금고기관》 같은 경우는 비록 출판을 하였으나 일제시대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기에 제외 시켰다. 그러나 번역의 일부는 조선말에 번역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이나 되어 출판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중국고전소설들은 중국에서 출판된 후 한동안의 기간을 거쳐 비교적 완만하게 국내에 유입되었지만 시대가 조선 중·후기로 갈수록 유입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급기야 중국통속소설이 크게 번성하던 明末清初 시기에는 중국에서 출판되는 즉시 무더기로 수백 수천 권씩 국내에 유입되어 유행하는 민첩한 기동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셋째, 위에 언급된 도표에서 보이듯이 중국고전소설의 국내유입을 밝히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 자료로는 근래에 박재연교수가 발굴한 尹德熙⁴⁾의 《字學歲月》(46종: 1744년⁵⁾)과 《小說經覽者》(128종: 1762년⁶⁾)이다.

4) 尹德熙(1685~1766) 자는 敬伯이고 호는 駱西, 蓮圃, 蓮翁이다. 본관은 南海이다. 화가로 작품은 夏景山水圖, 騎馬婦人圖, 溲勃集(유고집) 등이 있다.

5) 尹德熙의 《字學歲月》(46종): 1744년

* 歷史小說: 《三國志》, 《西漢記》, 《隋唐志》, 《列國誌》, 《五代史》, 《南宋衍義》, 《北宋衍義》, 《開闢演譯》, 《東漢記》

* 英雄小說: 《水滸志》, 《後水滸志》, 《大明英烈傳》

* 神魔小說: 《西遊記》, 《孫龐衍義》, 《西洋記》, 《女仙外史》, 《東遊記》

* 話本小說: 《警世通言》, 《十二峯》, 《貪歡報》, 《西湖佳話》

* 人情小說: 《濃情快事》, 《浪史》, 《杏花天》, 《肉蒲團》, 《戀情人》, 《玉樓春》, 《醒風流》, 《定情人》, 《驚夢啼》, 《畫圖緣》, 《金翠翹傳》, 《賽花鈴》, 《五鳳吟》

* 文言小說: 《商傳》, 《山海經》, 《國色天香》

* 戲曲: 《西廂記》, 《四夢記》, 《續情燈》

* 韓國文言小說: 《南征記》, 《紅白花傳》

* 未確認小說: 《奇團圓》.

6) 尹德熙의 《小說經覽者》(128종): 1762년

* 歷史小說: 《三國衍義(三國演義)》, 《開闢演譯(開闢演譯)》, 《列國誌(東周

또 《小說經覽者》(1762년)와 동 시기에 나온 朝鮮 英祖38年(1762년) 完山李氏作 《中國小說繪模本》 序文⁷⁾ 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나온다.

- 列國志》, 《五代史(殘唐五代史演義)》, 《南宋衍義》, 《東漢記(東漢演義)》, 《西漢記(西漢演義)》, 《隋唐志(隋唐演義)》, 《後三國志》, 《北宋衍義》, 《隋煬帝艷史》, 《韓魏小史》
- * 英雄小說 : 《忠義水滸志(120회본)》, 《後水滸傳》, 《仙眞逸史(禪眞逸史의 오기)》, 《大明英烈傳(皇明英烈傳)》, 《精忠傳》, 《楊六郎傳》
 - * 神魔小說 : 《孫龐衍義》, 《封神記(封神演義)》, 《西周演義》, 《西遊記》, 《東遊記》, 《西洋記(三寶太監西洋記)》, 《後西遊記》, 《平妖傳》, 《女仙外史》
 - * 話本小說 : 《歡喜冤家(歡喜奇觀)》, 《醒世恒言》, 《覺世名言》, 《警世通言》, 《今古奇觀》, 《五色石》, 《西湖佳話》, 《貪歡報》, 《人中畫》, 《拍案驚奇》, 《留人眼》, 《八洞天》, 《跨天虹》, 《鴛鴦影》, 《錦疑團》, 《西湖二集》, 《一片情》, 《十二峯》, 《再求鳳》, 《一枕奇》, 《雙劍雪》, 《金粉惜》, 《快士傳》
 - * 人情小說 : 《醒世因緣》, 《杏花天》, 《濃情快事》, 《昭陽醜史(昭陽趣史의 오기)》, 《金瓶梅》, 《痴婆子傳》, 《玉樓春》, 《肉蒲團》, 《弁而釵》, 《浪史》, 《戀情人》, 《巫夢緣》, 《玉嬌梨》, 《引鳳簫》, 《好逑傳》, 《玉支機(玉支磯의 오기)》, 《春風面(春風眼의 오기)》, 《巧聯珠》, 《六才子傳》, 《春柳鶯》, 《金翠翹傳(金雲翹傳)》, 《蝴蝶媒》, 《平山冷烟(平山冷燕의 오기)》, 《飛花艷想》, 《催曉夢》, 《吳江雪》, 《兩交婚傳》, 《迴文傳》, 《賽花鈴》, 《錦香亭》, 《鳳凰池》, 《定情人》, 《歸蓮夢》, 《五鳳吟》, 《畫圖緣》, 《驚夢啼》, 《醒風流》, 《情夢杳》, 《夢月樓》, 《麟兒報(麟兒報의 誤記)》
 - * 文言小說 : 《商傳》, 《國色天香》, 《古列女傳》, 《山海經》, 《太平廣記》, 《列仙傳》, 《剪燈新話》, 《剪燈餘話》, 《艷異篇》, 《文苑查橘(文苑植橘의 오기)》, 《虞初志(虞初新志)》, 《花陣綺言》, 《一夕話》, 《情史》, 《西湖志》
 - * 公案小說 : 《龍圖神斷(龍圖公案)》
 - * 戲曲 : 《西廂記》, 《西樓記》, 《四夢記》, 《續情燈》
 - * 其他 : 《養正圖說》, 《釋氏源流》, 《寂光經》, 《感應圖說》, 《鴻書》
 - * 韓國文言小說 : 《王慶龍傳》, 《周生傳》, 《南征記》, 《紅白花傳》
 - * 未確認小說 : 《笑裡笑》, 《天下異紀》, 《蘭咳集》, 《奇團圓》, 《千古奇聞》, 《人月圓》, 《遇奇緣》, 《杏紅衫》, 《河陽媲美》.

박재연, <윤덕희의 小說經覽者>, 《문헌과 해석》통권19호, 문헌과 해석사, 2002년 여름호.

7) 完山李氏作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

夫《四書》, 《六經》及《綱目》, 《通鑑》, 《宋鑑》, 《明史》, 《綱鑑》諸書,

이처럼 完山李氏作 《中國小說繪模本》 序文은 尹德熙의 《字學歲月》 과 《小說經覽者》와 함께 조선후기에 중국고전소설의 국내유입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넷째, 중국고전소설의 保存과 遺失問題이다. 中國에서는 이미 그 작품이 失傳되었지만 國內에 그 書名만 남아있는 경우이다. 즉 《太原志》(이 책은 중국에서도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오직 낙선재에 번역본 4권 4책과 《中國小說繪模本》에 書名만 언급되어 있다. 언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명대로 추정할 뿐 정확한 근거는 없다.)나 《南溪演談(義)》

韓·柳, 白·李·杜, 蘇諸集, 朱子諸書, 《二程全書》等諸子百家之外, 又有稗官少史等諸書, 其名不可勝記. 然其中有大小精粗·虛實·警世之, 何則? 槩其條目之大則, 曰《開闢演義》, 曰《涿鹿演義》, 曰《西周演義》(封神演義), 曰《列國志》, 曰《西漢演義》, 曰《東漢演義》, 曰《三國志》, 曰《東晉演義》, 曰《西晉演義》, 曰《禪真逸史》, 曰《隋唐演義》, 曰《殘唐演義》, 曰《南宋演義》(南宋志傳), 曰《北宋演義》(楊家將傳), 曰《皇明英烈傳》(雲合奇蹤), 曰《續英烈傳》, 曰《焦史演義》(焦史通俗演義)也. 其條目之小則曰《留人眼》, 曰《西湖佳話》, 曰《人中畫》, 曰《禪真後史》, 曰《剪燈叢話》, 曰《文苑植橋》, 曰《艷異編》(新鐫玉茗堂批評評州先生艷異編), 曰《五色石》, 曰《聖世言》, 曰《醒世恒言》, 曰《拍案驚奇》, 曰《今古奇觀》, 曰《列仙傳》, 曰《女範》, 曰《士範》, 曰《養正圖解》, 曰《孫龐演義》, 曰《四才子書》(平山冷燕), 曰《玉巧利》, 曰《玉支磯》(玉支磯·雙英記), 曰《春風眼》, 曰《春柳鶯》, 曰《破閑談》, 曰《巧聯珠》, 曰《好逑傳》(俠義風月傳), 曰《王翠翹傳》(金翠翹傳), 曰《弁以釵》, 曰《引鳳簫》, 曰《鳳簫梅》, 曰《山中一夕話》, 曰《仙媛傳》, 曰《富公傳》, 曰《盛唐演義》, 曰《太原志》, 曰《聖經直解》, 曰《七克》, 曰《聘聘傳》(剪燈餘話 卷5: 賈雲華還魂記), 曰《西廂記》也. 其中又有大中小帙曰《西遊記》, 曰《後西遊記》, 曰《東遊記》, 曰《水滸志》, 曰《後水滸志》, 曰《水滸後傳》, 曰《西洋記》(三寶太監西洋記通俗演義), 曰《包公演義》, 曰《無冤錄》, 曰《迪吉錄》, 曰《感應篇》, 曰《剪燈新話》也. 又其中有淫談怪說曰《濃情快史》, 曰《昭陽趣史》, 曰《金屏梅》, 曰《陶情百趣》, 曰《玉樓春》(覺世姻緣玉樓春), 曰《貪歡報》, 曰《杏花天》(閨房野談錄), 曰《肉蒲團》, 曰《戀情人》(迎春趣史), 曰《巫夢緣》, 曰《燈月緣》, 曰《鬧花叢》(新鐫批評繡像鬧花叢快史), 曰《艷史》, 曰《桃興圖畫》, 曰《百抄》, 曰《何潤傳》(河間傳의 誤記)也. 形形色色, 鬱鬱葱葱, 不可盡喻. 其中可鑑可戒者, 可笑可愛者, 抄集成冊, 令繪士主簿金德成等若干人, 摸本粧冊, 開卷歷代事跡, 其可瞭然. 引書序于首, 又作小跋于末, 以傳後之子孫, 其勿泛看也夫. 壬午閏五月初九日完山李氏書于麗暉閣之上
박재연 編, 《中國小說繪模本》, 강원대출판부, 1993년.

같은 소설은 중국에서는 판본은 물론 書名조차 확인할 수 없고 오직 국내에서 간혹 書名만 확인되거나 또는 기이하게도 번역본이 남아있어 그 흔적을 어렵듯이 알 수 있는 경우이다.

또 중국에서는 이미 亡失되어 판본조차 알 수 없지만 국내에 唯一本으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즉 《型世言》, 《刪補文苑植橘》, 《鍾離葫蘆》 등과 같은 판본은 오직 국내에만 있는 唯一本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다. 이러한 발굴은 박재연과 최용철 교수 등에 의해 여러 권 발굴되어 국내외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 현상으로 중국고전소설을 조선시대에 국내에서 일찍이 출판까지 하였으나 국내에는 그 판본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日本에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 판본이 바로 《花影集》과 《效顰集》같은 작품들이다.⁸⁾

그 외에도 本人이 미처 整理하지 못한 資料나 실수로 漏落되어진 자료 가운데에는 《型世言》처럼 中國에는 없는 原版本이 國內에 唯一本으로 남아있을 可能性도 항시 常存하고 있어, 도서관과 個人 所藏家를 중심으로 한 좀더 細密하고 체계적인 학술적 조사가 필요하다.

IV. 國內 流入된 清代小說

書名	流入關聯 最初記錄과 時期	翻譯/出版	所藏處
聊齋志異	1800年代初中期, 五洲衍文長箋散稿, 等	無	成均館 等
後聊齋志異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奎章閣
閱微草堂筆記	1800年代初·中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高麗大 等
虞初新志	未詳[1800年以前], 五洲衍文長箋散稿 卷7.	無	奎章閣 等

8) 沈暉俊, 《日本訪書志》,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년.

虞初續志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廣虞初新志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挑燈新錄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道聽塗說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右台仙館筆記	1800年代中期.	無	成均館
也上草堂筆記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八洞天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跨天虹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鴛鴦影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錦疑團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一片情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再求鳳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快士傳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四夢彙譚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淞南夢影錄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夢中緣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粉粧樓	未詳, 中國木版本	翻譯	成均館
增補記事珠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夜雨秋燈錄 (續錄)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延世大 等
秋燈叢話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爭春園全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等
諧鐸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螢窓異草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等
客窓閒話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延世大
壺天錄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天寶圖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可驚可愕集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高麗大
豆棚閒話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高麗大
四才子書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定情人	1744年以前, 字學歲月.	無	失傳
驚夢啼	1744年以前, 字學歲月.	無	失傳
畫圖緣	1744年以前, 字學歲月.	無	失傳
賽花鈴	1744年以前, 字學歲月.	無	失傳
五鳳吟	1744年以前, 字學歲月.	無	失傳
儒林外史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等
紅樓夢	1800年代前後, 五洲衍文長箋散稿, 等	翻譯	奎章閣 等
紅樓夢補	1800年代, 國內翻譯本	翻譯	樂善齋
紅樓復夢	1800年代, 國內翻譯本	翻譯	奎章閣 等
後紅樓夢	1800年代, 國內翻譯本	翻譯	成均館 等
續紅樓夢	1800年代前後, 五洲衍文長箋散稿, 等	翻譯	奎章閣 等
補紅樓夢	1800年代, 國內翻譯本	翻譯	樂善齋
青樓夢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等
肉蒲團	1744年以前, 字學歲月, 松泉筆談 卷3, 等	無	失傳
艷情快史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東亞大
醒風流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國內翻譯本	翻譯	樂善齋
兒女英雄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中央圖書館, 奎章閣 等
鏡花緣	1835~1848年以前, 國內翻譯本	翻譯	奎章閣 等
醒世因緣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六才子書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蝴蝶媒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飛花艷想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催曉夢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吳江雪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燕山外史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等
女仙外史	1812年以前, 潭庭叢書(卷28)	翻譯	奎章閣 等

好逑傳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一名:俠義風月傳	翻譯	奎章閣 等
平山冷燕	1717年以前, 北軒雜說,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等	翻譯	中央圖書館 等
平妖傳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馮夢龍增補修訂本(一名:平妖記)	翻譯	樂善齋 等
忠烈俠義傳	未詳(朝鮮後期), 國內翻譯本, 一名:三俠五義	翻譯	延世大, 樂善齋 等
七俠五義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等
小五義	未詳(朝鮮後期), 國內翻譯本	翻譯	樂善齋 等
續小五義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等
小八義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江陵市船橋莊
七劍十三俠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高麗大, 全南大 等
濟公全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高麗大
續濟公案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高麗大 等
海公大紅袍全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延世大 等
施公案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朴在淵
彭公案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樂善齋
續彭公案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于公案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高麗大
白牡丹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東亞大
子不語	未詳[1800年以前], 五洲衍文長箋散稿 卷7. 一名:新齊諧	無	失傳
杏花天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戀情人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燈月緣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艷史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河間傳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巫夢緣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陶情百趣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玉嬌梨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一名:雙美奇緣	翻譯	成均館 等
玉支磯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翻譯	연세대
巧聯珠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金雲翹傳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一名:王翠翹傳	無	失傳
春柳鶯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引鳳簫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翻譯	樂善齋
鳳簫媒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春風眼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	無	失傳
兩交婚傳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迴文傳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鳳凰池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歸蓮夢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情夢柝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綠野仙蹤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等
珍珠塔	未詳(朝鮮後期), 國內翻譯本	翻譯	樂善齋 等
白圭志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等

芙蓉洞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釜山大
十粒金丹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高麗大 等
說冷話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兒女濃情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梨花女大
五雷陳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梨花女大
李翠蓮施釵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梨花女大
雙奇緣傳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五美緣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義妖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花月痕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等
綠牡丹全傳	未詳(朝鮮末期), 國內翻譯本	翻譯	成均館, 樂善齋 等
雪月梅傳	1800年代中後期, 國內翻譯本, 兒女濃情傳(改名本)	翻譯	奎章閣 等
錦香亭記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國內翻譯本	翻譯, 出版	中央圖書館 等
說唐演義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等
說唐後傳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建國大 等
西來演義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焦史演義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無	失傳
五虎平西狄青演義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慶北大
洪秀全演義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梨花女大, 全南大 等
吳三桂演義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高麗大, 朴在淵 等
昇仙傳演義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樂善齋, 成均館 等
征東全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東亞大
二十四史演義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延世大 等
快心編	朝鮮後期, 國內翻譯本, 一名:醒世奇觀	翻譯	樂善齋

飛龍傳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續五龍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東亞大
野叟曝言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等
呂祖全傳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瑤華傳	未詳(朝鮮末期), 國內翻譯本	翻譯	奎章閣 等
二度梅傳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唐宋百家小說	1787年以前, 朝鮮王朝實錄46(正祖16年 10月 己丑條)	無	失傳
玉樓春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無	失傳
八美圖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東亞大
善惡圖全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繪芳錄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四海堂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英雲夢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高麗大 等
萃忠全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西湖佳話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無	奎章閣 等
西湖拾遺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里乘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文明小史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宋俊浩(全州)
品花寶鑑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等
今古奇聞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等
五色石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無	失傳
人中畫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無	失傳
留人眼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無	失傳
夢月樓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麟兒報	1762年以前, 小說經覽者.	無	失傳
玉釧綠全傳	1800年代初中期, 五洲衍文長箋散稿, 等	無	樂善齋 等
九尾龜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박재연
歸天瑣言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宋人百家小說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女才子傳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中央圖書館 等
混元盒全傳	未詳(朝鮮末), 中國木版本, 一名: 五毒傳	無	奎章閣
千里駒	未詳(朝鮮末期)	翻譯	中央圖書館
十八國臨潼 鬪寶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梨花女大
四淫齊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東亞大
反唐四望亭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水晶球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釜山大
希夷夢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等
離合劍蓮子 瓶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永慶昇平前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等
平鬼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逐窟譚言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潤松本
梨花雪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三合明珠寶 劍全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宋艷	未詳(朝鮮後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萬年清奇才 新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萬花樓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延世大
碧玉獅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平面涼全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梨花女大
玉連環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雙珠鳳全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八仙緣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英雄大八義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慶北大
紅風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朴在淵
雙美緣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一名:第十才子書	翻譯	成均館
走馬春秋全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高麗大

海上繁華夢 新書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成均館
錦上花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朴在淵
麒麟豹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奎章閣 等
正德遊江南 全傳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全南大
我佛山人割 記小說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高麗大
前笑中緣金 如意	未詳(朝鮮末期), 中國木版本	無	梨花女大, 東亞大 等
再生緣傳	未詳(朝鮮後期), 國內翻譯本	翻譯	樂善齋 等
破閑談	1762年以前, 中國小說繪模本 序文	無	失傳

이상의 도표에서 확인되듯 국내에 유입된 청대소설은 대략 190여 종으로 전체 유입량 330여 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판본의 유입양상과 번역 및 출판 상황 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여 종이라는 많은 수량에 비하여 번역과 출판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현상을 보여준다. 청대 작품의 번역은 약 27종정도이고 출판은 1종에 불과하다. 그것도 방각본으로 겨우 명맥만 이어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고전소설 작품에 대한 당시 讀者層의 취향과 選好度를 반영하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둘째, 청대의 작품에 대한 유입관련 기록이나 書名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어 최초의 유입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러한 판본의 도서관 所藏은 급격히 증가하여 유입에 대한 出處와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판본들이 대거 등장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국내 유입된 판본 중에는 비교적 각 시대별로 고르게 유입되었으나 《儒林外史》나 《鏡花緣》같은 소설들은 다른 소설에 비하여 유입된 판본의 數量이 상당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고, 淸 末期의 譴責小說들과 그 後代에 나온 作品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급격한 축소현상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西歐文物의 大量流入과 일본에 의하여 주도된 甲午更張 및 韓日合邦 등으로 인한 政治社會의 혼란, 그리고 讀者層의 意識變化에 의해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需要가 급격한 減少趨勢로 이어진 結果로 보여 진다.

넷째, 도표 가운데는 판본의 所藏處가 失傳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는 비록 古典文獻의 記錄에는 小說 書名이 언급되어 있지만 實際 國內 圖書館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亡失된 板本들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본들은 오히려 研究價値가 높은 作品들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될 가능성이 항시 열려있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

V. 板本概況과 分析

이상의 기록에 의거하면, 국내에 유입된 중국고전소설의 수량은 대략 330여 種으로 확인된다. 시대 별로 작품수를 살펴보면 명대 이전의 소설이 약 40여 종, 명대소설은 약 100여 종, 청대소설은 약 190여 종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대략적인 조사이긴 하지만 청대소설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注目할 부분은 “문헌기록에는 언급되었지만 실제 판본은 존재하지 않는 작품”과 “문헌기록에는 없으나 실제 판본이 존재하는 작품” 그리고 “유입기록과 판본이 모두 존재하는 작품” 등 이다. 이것을 작품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헌기록에 언급되었으나 실제 판본은 존재하지 않는 작품: 약 103종
 《新序》, 《洞冥記》, 《十州記》, 《漢武故事》, 《高士傳》, 《語林》, 《吳越春秋》, 《說郛》, 《齊諧記》, 《諸阜記》, 《遊仙窟》, 《南柯夢記》, 《白猿傳》, 《邯鄲夢記》, 《趙飛燕外史》, 《嬌紅記》, 《剪燈餘話》, 《剪燈叢話》, 《花影集》(日本所藏), 《效顰集》(日本所藏), 《虞初志》, 《西湖遊覽志》, 《五雜俎》, 《浪史》, 《國色天香》, 《顧玉川傳》,

《稗海》，《稗史彙編》，《林居漫錄》，《仙媛傳》，《富公傳》，《迪吉錄》，《避暑餘話》，《太平清話》，《山中一夕話》，《漢魏小史》，《焦史演義》，《盛唐演義》，《東晉演義》，《西晉演義》，《涿鹿演義》，《齊魏演義》，《後西遊記》，《楊六郎傳》，《貪歡報》，《痴婆子傳》，《弁而釵》，《昭陽趣史》，《拍案驚奇》，《禪真後史》，《警世通言》，《覺世名言》，《西湖二集》，《一枕奇》，《雙劍雪》，《金粉惜》，《子不語》，《唐宋百家小說》，《夢中緣》，《肉蒲團》，《玉樓春》，《杏花天》，《戀情人》，《燈月緣》，《艷史》，《陶情百趣》，《巧聯珠》，《金雲翹傳》，《春柳鶯》，《鳳簫媒》，《四才子書》，《春風眼》，《河潤傳》，《巫夢緣》，《定情人》，《驚夢啼》，《畫圖緣》，《賽花鈴》，《五鳳吟》，《醒世因緣》，《六才子書》，《蝴蝶媒》，《飛花艷想》，《催曉夢》，《吳江雪》，《兩交婚傳》，《迴文傳》，《鳳凰池》，《歸蓮夢》，《情夢杳》，《夢月樓》，《麟兒報》，《破閑談》，《八洞天》，《跨天虹》，《鴛鴦影》，《錦疑團》，《一片情》，《再求鳳》，《快士傳》，《五色石》，《人中畫》，《留人眼》。

2. 문헌기록에는 없으나 판본이 존재하는 작품: 약 157종

《神異經》，《西京雜記》，《宣室志》，《獨異志》，《閑窗括異志》，《福壽全傳》，《溪蠻叢笑》，《過庭錄》，《冷齋夜話》，《螢雪叢說》，《癸辛雜識》，《覓燈因話》，《五朝小說》，《智囊補》，《情史》，《皇命世說新語》，《紅梅記》，《春夢瑣言》，《隋史遺文》，《三遂平妖傳》，《大唐秦王詞話》，《韓湘子傳》，《粉粧樓》，《結水滸傳》，《北窗志異》，《紅隣幾雜誌》，《瓦史》，《隔簾花影》，《檣杌閒評全傳》，《娉娉傳》，《快心編》，《醉醒石》，《石點頭》，《野記》，《後聊齋志異》，《閱微草堂筆記》，《虞初續志》，《廣虞初新志》，《挑燈新錄》，《右台仙館筆記》，《道聽塗說》，《也上草堂筆記》，《希夷夢》，《四夢彙譚》，《淞南夢影錄》，《夢中緣》，《爭春園全傳》，《記事珠》，《夜雨秋燈錄(續錄)》，《秋燈叢話》，《諧鐸》，《螢窓異草》，《客窓閒話》，《壺天錄》，《天寶圖》，《可驚可愕集》，《豆棚閒話》，《儒林外史》，《紅樓夢補》，《紅樓復夢》，《後紅樓夢》，《補紅樓夢》，《兒女英雄傳》，《鏡花緣》，《燕山外史》，《忠烈俠義傳》，《七俠五義》，《小五義》，《續小五義》，《小八義》，《七劍十三俠》，《濟公全傳》，《續濟公案》，《海公大紅袍全傳》，《施公案傳》，《彭公案傳》，《續彭公案》，《于公案》，《白

牡丹傳》，《白圭志》，《花月痕》，《青樓夢》，《綠牡丹傳》，《雪月梅傳》，《說唐演義》，《說唐後傳》，《西來演義》，《五虎平西狄青演義》，《洪秀全演義》，《吳三桂演義》，《昇仙傳演義》，《前後七國志》，《征東全傳》，《二十四史演義》，《飛龍傳》，《續五龍傳》，《野叟曝言》，《呂祖全傳》，《瑤華傳》，《二度梅傳》，《綠野仙蹤》，《珍珠塔》，《芙蓉洞傳》，《十粒金丹》，《說冷話》，《兒女濃情傳》，《五雷陳傳》，《李翠蓮施釵》，《雙奇緣傳》，《五美緣》，《義妖傳》，《善惡圖全傳》，《四海堂傳》，《萃忠全傳》，《西湖拾遺》，《里乘》，《文明小史》，《今古奇聞》，《英雲夢傳》，《歸天瑣言》，《宋人百家小說》，《混元盒全傳》，《十八國臨潼鬪寶》，《四淫齋》，《水晶球傳》，《反唐四望亭》，《離合劍蓮子瓶傳》，《永慶昇平前傳》，《遜窟譚言》，《梨花雪》，《三合明珠寶劍全傳》，《宋艷》，《萬年清奇才新傳》，《萬花樓傳》，《碧玉獅傳》，《平面涼全傳》，《玉連環》，《雙珠鳳全傳》，《八仙緣》，《英雄大八義》，《紅風傳》，《平鬼傳》，《品花寶鑑》，《繪芳錄》，《走馬春秋全傳》，《女才子傳》，《海上繁華夢新書》，《錦上花》，《麒麟豹》，《正德遊江南全傳》，《我佛山人割記小說》，《前笑中緣金如意》，《千里駒》，《八美圖》，《九尾龜》，《雙美緣》，《再生緣傳》。

3. 유입기록과 판본이 모두 존재하는 작품: 69종

《山海經》，《穆天子傳》，《說苑》，《列仙傳》，《列女傳》，《述異記》，《博物志》，《搜神記》，《世說新語》，《酉陽雜俎》，《夷堅志》，《太平廣記》，《宣和遺事》，《睽車志》，《剪燈新話》，《何氏語林》，《艷異編》，《文苑植橘》，《玉壺水》，《三國志演義》，《後三國志》，《封神演義》，《東周列國志》，《隋唐演義》，《西漢演義》，《東漢演義》，《殘唐五代史演義》，《皇明英烈傳》，《續英烈傳》，《武穆王精忠錄》，《開闢演義》，《孫龐演義》，《北宋志傳》，《南宋志傳》，《包公演義》，《薛仁貴傳》，《南溪演義》，《西遊記》，《東遊記》，《三寶太監西洋記》，《水滸傳》，《後水滸傳》，《續水滸傳》，《金瓶梅》，《續金瓶梅》，《鐘離葫蘆》，《醒世恒言》，《型世言》，《今古奇觀》，《鬧花叢》，《禪真逸史》，《濃情快史》，《聊齋志異》，《虞初新志》，《紅樓夢》，《續紅樓夢》，《醒風流》，《好逑傳》，《平山冷燕》，《女仙外史》，《平妖傳》，《隋煬帝艷史》，《錦香亭記》，《太原志》，《玉支磯》，《玉嬌梨》，《引鳳簫》，《玉釧綠全傳》，《西湖佳話》。

이상 국내에 유입된 약 330여 종의 작품 가운데 “문헌기록에는 없으나 판본이 존재하는 작품” 약 160여 종과 “유입기록과 판본이 모두 존재하는 작품” 약 70여 종을 합하면 대략 230여 종의 판본이 국내 여러 도서관에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오직 국내 문헌기록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 실제 판본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발굴하지 못한 작품이 약 100여 종으로 조사되었다.

以上の 圖表에서 確認되듯 특수한 경우의 몇몇 作品들만 빼고 大部分의 中國筆記小說과 通俗小說들은 이미 조선시대에 國內에 流入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通俗小說에 있어서는 거의 大部分이 流入되어 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 국내 유입된 중국고전소설 330여 종 가운데 약 59종의 작품이 번역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로 여기에서 翻案類 小說까지 합하면 近 100餘 種이나 되는데, 이는 當時 중국고전소설이 讀者들에게 상당히 歡迎을 받았다는 사실을 證明해 주는 것이다.

- (1) 列女傳, (2) 太平廣記, (3) 太原志, (4) 三國演義, (5) 西周演義(封神演義), (6) 列國志, (7) 隋唐演義, (8) 西漢演義, (9) 東漢演義, (10) 殘唐五代演義, (11) 大明英烈傳, (12) 武穆王貞忠錄, (13) 開闢演義, (14) 孫龐演義, (15) 唐晉[秦]演義, (16) 北宋演義, (17) 南宋演義, (18) 包公演義, (19) 薛仁貴傳, (20) 南溪演義, (21) 西遊記, (22) 東遊記, (23) 水滸傳, (24) 後水滸傳, (25) 仙眞逸史(禪眞逸史), (26) 快心編(醒世奇觀), (27) 聘聘傳(娉娉傳), (28) 剪燈新話, (29) 型世言, (30) 今古奇觀, (31) 紅梅記, (32) 花影集, (33) 隋史遺文, (34) 紅樓夢, (35) 紅樓夢補, (36) 紅樓復夢, (37) 後紅樓夢, (38) 續紅樓夢, (39) 補紅樓夢, (40) 醒風流, (41) 鏡花緣(第一奇診), (42) 女仙外史, (43) 好逑傳, (44) 平山冷燕, (45) 平妖記, (46) 忠烈俠義傳, (47) 忠烈小五義傳, (48) 玉嬌梨傳, (49) 麟鳳詔(引鳳簫), (50) 瑤華傳, (51) 粉粧樓, (52) 玉支機, (53) 雙美緣, (54) 千里駒, (55) 綠牡丹, (56) 雪月梅傳, (57) 錦香亭記, (58) 珍珠塔, (59) 再生緣傳.

우리의 古典小說史에 있어서 중국소설에 대한 翻譯과 翻案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문학형태로 이는 중국소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새로운 문학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朝鮮時代に 翻譯과 翻案이 크게 興盛하였던 사실은 현재 國內의 各 圖書館에 所藏된 翻譯 및 翻案의 版本量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중국소설들은 대략 17~19세기에 翻譯 혹은 翻案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며 간혹 일부 《三國演義》나 《今古奇觀》계통의 소설 중에는 1900년대 초기에 이루어진 작품들도 발견된다.

번역본 59개의 작품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명대이전 작품으로는 《列女傳》과 《太平廣記》 등 2종이 있고, 명대의 작품으로는 《三國演義》를 포함하여 대략 30종정도이며, 청대의 작품으로는 《紅樓夢》을 포함하여 약 27종으로 확인된다. 번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明代 作品이 청대 작품보다 많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중 명대 번역본 약 30종 가운데 약 17종이 연의류 소설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明代 作品이 명나라와 同 時代인 조선 초·중기에 번역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소설들은 조선 후기에 번역되어진 것으로 당시 독자층의 嗜好와 愛好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중국고전소설이 국내에서 출판되어 졌다는 최초의 기록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찾아 볼 수 있는데, 현재 朝鮮時代に 出版된 中國古典小説은 대략 18種으로 확인된다.

《列女傳》, 《世說新語》, 《西陽雜俎》, 《太平廣記》, 《嬌紅記》(未確認), 《剪燈新話句解》, 《剪燈餘話》, 《文苑植橘》, 《三國演義》, 《水滸傳》, 《西遊記》, 《楚漢傳》, 《薛仁貴傳》, 《鍾離葫蘆》, 《花影集》, 《效顰集》, 《玉壺水》, 《錦香亭記》等.

사실 한 小說作品이 다른 나라에 流入되어 그곳에서 出版되기까지는 그

리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8種 以上の 作品이 出版되었다는 사실, 또 朝鮮時代와 같은 封建社會 속에서 중국의 고전소설이 원문으로 혹은 번역되어 出版되어 졌다는 사실은 그 작품이 독자들에게 상당히 환영받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三國演義》같은 小說은 4~5차례 以上の 國內 出版記錄이 있음을 볼 때 이는 대단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또 국내에서 出版된 作品 가운데 《世說新語補》, 《唐段小卿西陽雜俎》, 《詳節太平廣記》, 《剪燈新話句解》, 《刪補文苑植橘》, 《三國演義》, 《花影集》, 《玉壺水》, 《效顰集》 등은 中國原文으로 出版되었는데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 당시 出版層 및 讀者層의 嗜好와 水準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嬌紅記》는 연산군 때 간행하여 바치라는 기록만 있지 그 후 출판되었다는 기록은 없어 확실한 간행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 외 《水滸傳》, 《西遊記》, 《薛仁貴傳》, 《楚漢傳(西漢演義)》, 《錦香亭記》 등은 翻譯文으로 出版하였는데 모두가 1800年代 以後에 出版된 坊刻本으로 보여 진다.

국내에서 출판된 18개의 중국소설 작품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명대이전 작품으로는 《列女傳》, 《世說新語》, 《西陽雜俎》, 《太平廣記》, 《嬌紅記》(未確認) 정도가 있고, 명대의 작품으로는 《剪燈新話句解》, 《剪燈餘話》, 《文苑植橘》, 《三國演義》, 《水滸傳》, 《西遊記》, 《楚漢傳》, 《薛仁貴傳》, 《鍾離葫蘆》, 《花影集》, 《效顰集》, 《玉壺水》(총 12종 작품) 등, 대부분의 소설들이 명대의 작품이며 청대의 작품으로는 오직 《錦香亭記》만 존재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조선후기 방각본으로 나온 《水滸傳》, 《西遊記》, 《楚漢傳》, 《薛仁貴傳》 등 몇몇 작품을 제외하면 대개가 문언체로 꾸며진 작품이다. 이는 당시 文言文에 더 익숙했던 조선 독자층의 성향과 수요에 따라 출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以上에서 言及한 18種의 出版本 외에도 資料의 未備로 確認할 수 없는 것과 不注意로 亡失된 것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더 많아지리라 推測된다. 그러기에 持續的인 資料의 發掘과 연구가 요망된다.

VI. 結 語

국내 고전문헌에 언급된 중국고전소설의 유입관련 기록과 국내 30여개의 주요 도서관 등에 소장된 中國古典小說 고서목록을 調査해 보니 그 數量이 무려 330餘種이나 되었다. 여기에서 본인은 이들의 流入時期와 關聯된 最初の 文獻記錄 및 翻譯·出版與否와 所藏處 등을 도표로 整理해 보았다. 도표를 크게 “명대이전의 작품”과 “명대의 작품” 그리고 “청대의 작품”으로 三分하여 정리한 결과 명대 이전의 소설이 약 40여 종, 명대소설은 약 100여 종, 청대소설은 약 190종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대략적인 조사이긴 하지만 청대소설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내에 유입된 330여 종의 작품 가운데는 “오직 국내 문헌기록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 실제 판본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발굴하지 못한 작품”이 약 100여 종이 있었고 “문헌기록에는 없으나 판본이 존재하는 작품”이 약 160여 종, “유입기록과 판본이 모두 존재하는 작품”으로는 약 7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총 330여 종 가운데 국내 도서관에서 확인되는 판본이 약 230여 종이고 오직 문헌에서만 書目を 확인할 수 있는 판본도 약 100여 종이나 되었다.

또 조선시대 번역된 작품으로 약 59개의 번역본이 있는데 이들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명대이전 작품으로는 2종이 있고, 명대의 작품으로는 약 30종, 청대의 작품으로는 약 27종으로 번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대작품보다 명대작품이 많은 것이 특이하다.

그 외 국내 出版本으로는 약 18종이 확인되는데, 명대이전 작품으로는 5종, 명대의 작품으로는 12종으로 대부분이 명대의 소설이다. 청대의 작품으로는 오직 1종만 존재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조선후기 방각본으로 나온 몇몇 작품을 제외하면 대개가 문언체로 꾸며진 작품이다. 이는 당시 文言文에 더 익숙했던 조선 독자층의 성향과 수요에 따라 출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以上에서 언급한 유입본, 번역본, 출판본 외에도 資料의 未備로 確認할 수 없는 것과 不注意로 亡失 및 漏落된 것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 나리라 추정된다. 또 안타까운 점은 일부 書目이나 판본 가운데 出處未詳 과 자료부족으로 시대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개략적인 추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參考文獻>

- 허균, 《許筠全書》,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253쪽.
 沈喁俊, 《日本訪書志》,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년.
 《中國古代小說百科全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3년.
 《中國古典小說鑑賞辭典》, 中國展望出版社, 1989년.
 吳邨, 《200種中國通俗小說述要》, 臺灣 漢欣文化事業有限公司, 1990년.
 오순방외(譯),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1-5집), 울산대출판부, 1993~1999년.
 중국소설연구회편, 《중국소설사의 이해》, 서울 학고방, 1994년.
 박재연(編), 《中國小說繪模本》, 강원대출판부, 1993년.
 민관동, 《中國古典小說在韓國之傳播》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98년.
 민관동,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 아세아문화사, 2001년.
 민관동, 《中國古典小說批評資料叢考》, 학고방, 2003년.
 박재연, <조선시대 중국통속소설 번역본 연구>,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논문, 1992년.
 박재연, <윤덕희의 小說經覽者>, 《문헌과 해석》19호, 문헌과 해석사, 2002년 여름호.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국내 수용>, 《中國小說論叢》제14집, 2001년.

<中文提要>

通過對國內古典文獻中所記載的中國古典小說流入記錄和國內30多家圖書館與大學圖書館等所藏的中國古典小說古書目錄的調查結果來看其數目大約為330餘種。據調查，其中約40餘種為明代以前的小說；明代小說約為100餘種；而清代小說則約為190餘種。並且，在調查中發現這330餘種流入我國內的作品中，只于文獻記錄中出現而沒有或是尚未能發現實際現存版本的作品數目大約為100餘種；而不存在于文獻記錄之中但是有現存版本的作品數目大約為160餘種；至于流入的文獻記錄和現存版本都有的作品數目則大約有70餘種。

再者，在我國朝鮮時代所被翻譯的作品的59個翻譯本中，明代以前的作品為2種，明代作品約為30種，清代的作品約為27種；令人意外的是與清代相比明代的作品反而更多。

在我國內已正式出版過的版本約為18種中我們看到出現了有明代以前的作品5種，明代的作品12種，而清代的作品則只有1種的這樣一個奇異的現象。還有的是，除朝鮮後期以坊刻本出現的幾部作品外，其餘大都是文言文作品，這向我們展示了那個時代有着隨擁有能熟知漢文言文的朝鮮讀者的需要而出版的這一傾向。

在以上撰集的流入本，翻譯本，出版本之外，若是設立還有很多因為資料的缺失而無法確認和不注意而亡失或漏落的情況屬實的話，那麼我們則可以推測這個數量將是更多。因此，需要更進一步的有系統，規範性的資料發掘和研究。

주제어 : 中國古典小說, 流入, 受容, 板本, 翻譯, 出版